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5)

불타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2부11강 혜능과 아부의 스타일

저번 강의가 읽을 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집데스크는 늘 왜 또 엉뚱한 얘기를 끼워넣어 연재의 흐름을 끊고 수미상관을 다치느냐고 불이 땀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이것이 곧 금강경이고 구경법 전하려는 소식"이라고 강변합니다. 여러 독자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그 번역의 증거를 하나 대 드릴까 합니다.

는다. 무슨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신체의 감각에 현혹되거나 마음의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밖으로는 사람들의 실수와 악행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사된 미혹의 침범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불타이다."

불교는 무엇을 깨닫는가

깨달음이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열리는 것이겠습니까. 혜능은 지나가던 스님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에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 무슨 특별한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의 천성이었지요. 이 마음의 비밀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삶의 또 다른 이면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열려 있는 진실 아닐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세상이 내가 보는 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기 마음이 "자기 육량의 투사로 인한 편견으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 어렵 못한 진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

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어나가자는 것이 불교의 근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밖으로 사람들의 실수와 악행을 털 기억하고 곱씹는다(外不見人之過惡)"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 주었는지보다,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받은 신세를 더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불법(佛法)은 습성화된 채권자의 의식을 중지하는 혁명적 에포케(epoche)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간화선

교에서 성했고, 교단의 규율과 경전의 권위에 보수적이었으며, 개인적 구원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대승은 북방에서 성했고, 교단의 규율과 교리의 해석에 유연했으며, 개인보다 이웃과 전체를 구원하려는 보살도의 열망에 불탔다는, 그런 교과서적 설명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혜능 보살은 이런 구분을 일거에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결,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

상징과 비약으로 불법을 말하다

오늘은 <금강경> 오가해의 빛나는 보석인 아부도천(治父道川)의 찬가(頌) 한 자락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가끔 아부도천의 존월살인의 시를 불각시의 열음처럼 등 뒤에 넣어드리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혜능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쉽게,

제1장의 첫대목에 대한 아부의 찬가는 상징과 비약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 현란한 붓끝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합니다. 어디 '그의 금강경'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1. [如是]. 古人道, 喚作如如, 早是變了也. 且道, 變向甚處去. 咄. 不得亂走. 畢竟作麼生. 道火不曾燒卻口.
 2. [如如]. 靜夜長天一月孤.
 3. [是]. 是. 水不離波, 波是水. 鏡水塵風不到時, 應現無礙照天地. 看看.
 4. [我]. 淨裸裸, 赤西西, 沒可把. 我. 認得分明成兩箇. 不動纖毫本然. 知音自有松風和.
 5. [聞]. 切忌隨他去. 猿啼嶺上. 鶴唳林間. 斷雲風捲. 水激長湍. 最好晚秋霜午夜. 一聲新雁覺天寒.
 6. [一] 相隨來也. 一一. 破二成三從此出. 乾坤混沌未分前. 以是一生參學畢.
 7. [時]. 如魚飲水. 冷暖自知. 時時. 清風明月鎮相隨. 桃紅李白蔷薇紫. 問著東君自不知.
 8. [佛] 無面目說是非漢. 小名添達. 長號釋迦. 度人無數. 攝伏群邪. 若言他是佛. 自己卻成魔. 只把一枝無孔笛. 為君吹起太平歌.
 9. [在]. 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 獨坐一爐香. 金文誦兩行. 可憐馬客. 門外任他忙.
- 번호와 격쇠는 제가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아부노인은 맨 첫머리에 경전의 글자를 놓고, 거기 자기식의 격외의 해설을 던져놓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암호를 그냥 한번 일별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과 해설은 다음 회에서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이야” 소리 친다고 입이 타겠느냐

의 최종 목적이라는 언필칭 '궁극적 깨달음'처럼, 천만 높거나 위태롭지 않고, 아주 낮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어서 있습니다. 그 원리를 책 속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일이 귀하고 또 귀한 일입니다.



혜능의 <육조단경>은 경전을 외기만 할 뿐, 그것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증거하려 하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합니다. 그는 이 타성을 부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교외별전(敎外別傳), 즉 '책 속에는 길이 없다'는 파천왕의 선언입니다. 그는 불교사의 교판까지 이 목적을 위해 번조(번)합니다. 혹은 <단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는 이렇다. 경전에 코를 박고 있는 사람이 소승(小乘)이고, 경전에 담긴 이치 한 두 자락을 안 사람이 중승(中乘)이며, 그 통찰에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대승(大乘)의 사람이다. 그럼 최상승(最上乘)은? 그것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어찌했던 알아들도록 인내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지만, 지금 살릴 아부도천은 청중들이 알아듣고 말고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 수준들을 향해 시를 읊었습니다.

시는 본시 산문과는 달리 설득보다는 표현을 위해 마련된 형식 아닙니까. 이 점에서 혜능의 설교적 산문과 아부의 충격적 시가 스타일이랄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학인이 불을 읊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혜능의 돈교가 최상승이라 하는데, 그것과 대승의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승이 남발

그게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혜능 스님도 더 이상 묻지 말고 스스로 찾으라 했으니, 우선 입을 다물다.

주장사파라...

87 부용도해 선사와 휘종황제



조태호



부용도해(芙蓉道楷, 1043-1118): 송대 스님. 산동성 기주 비현 출신으로 의창(義禿) 스님을 만나 대오하고 법을 이음.

네티즌 교리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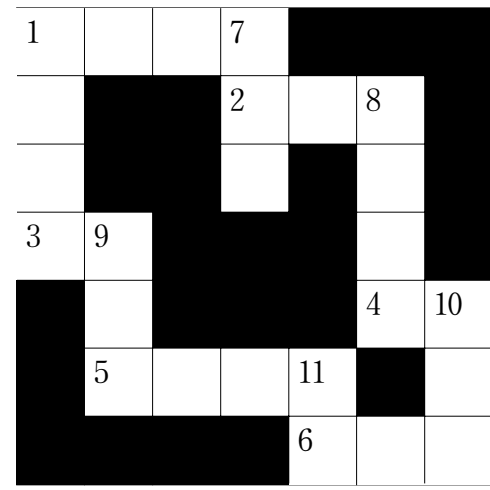
다반사(茶飯事)란 무엇인가요?

흔히들 "인생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스님에게 다반사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금규이)

답 1: 다반사란 말은 밥 먹고 차 마시듯 흔히 생기는 일을 표현할 때는 씁니다. 다반사란 말은 '한다반사(茶飯事)'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를 줄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여유와 도를 음미하는 차원에서 차를 즐겼습니다. 아랫사람은 좋은 차를 윗사람에게 드리고 싶어 했고, 친한 친구끼리 차를 나눠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예(禮)로 격상된 것이지요. '다반사의 일'을 '존경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승화시킨 예가 차례(茶禮)입니다. 우리는 한해가 시작되는 날에 조상의 앞 앞에 모여 경건히 밥을 드리고 차를 올립니다. 이를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를 지낸 다음 그해의 서원과 각오를 서로 나눕니다. 가을이 돼 풍년이 들면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다려 조상에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이면 명절이 생겼지요.(예절맨)

답 2: 다반사는 도(道)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정신과 태도와 정성을 모으면 나름대로의 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다도(茶道)'입니다. <동다승(東茶頌)>에 따르면, "차의 본원(本源)은 중정(中正)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관에서 차가 익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중정이 살아나면 차인(茶人)은 시공(時空)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공의 흐름을 알면 도(道)에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는 형식이 우선이고 다도는 정신(精神)의 도를 추구합니다. 정신세계의 길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차와 선을 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다선일어(茶禪一如)'라고 합니다. 차 마시는 정신에 선이 있고 선하는 과정에 다(茶)의 도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는 속에 삼매의 도가 있음을 알 때, 우리의 다반사는 숭고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 경지를 알면 평상심이 모두 불심이 됩니다. 평상심 속에 불심이 있다고 본 경지에서라면 풀 한 포기, 꽃 한 잎이 모두 불심이 되는 것입니다.(불심장)

불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천보산에 있는 절터로 10월 16일 제1회 전국 폐사지 투어콘서트 개최
2. 일본의 전통과자
3. 총림 아래의 사찰에서 최고 어른을 이르는 말
4. 중국 동한 말기 유비·장비와 결의 형제를 맺고 촉한(蜀漢)을 건국한 인물
5. 네모나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 그 안에서 납작한 돌을 옮기며 노는 놀이
6. 음식에 대한 욕심.

정답은 B15면에

1.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하여 비추는 뜻
7. 노래하거나 춤을 출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곡조에 맞춰 곁들이는 말
8. 자비심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
9.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때 창건된 구산선원 사찰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소재함
10. 친구사이의 정
11. 남의 집에 묵으면서 지냄.